

# 제약바이오, K-에스테틱 열풍에 글로벌 미용의료기기 공략

## 해외 현지 맞춤형 전략 강화

**클래시스** 브라질 인수로 성장 가속  
**제이시스** 멕시코·인도·UAE 공략  
**원텍** 태국·튀르키예 인증 확대

‘K에스테틱’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국내 미용의료기기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클래시스는 호실적을 달성하며 해외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한다.

클래시스는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2434억원, 누적 영업이익 1194억원을 올렸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 38% 커졌다. 또 누적 매출은 지난해 연간 매출 2429억원을 넘어섰다. 앞서도 2023년 1000억원대, 2024년 2000억원대에 진입하며 매년 외형 확대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해외 매출 규모는 전체의 약 64%에 달한다. 클래시스는 최근 브라질 등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브라질법인을 통해 남미 최대 미용의료기기 유통그룹 JL 헬스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JL 헬스의 고객 접점 시스템, 마케팅 노하우 등을 도입해 브라질법인의 지역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클래시스 측은 “현재 브라질 사업이 글로벌 매출 가운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외국인 환자가 피부 및 성형 의료상담을 받는 이미지.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시스메디칼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했다. 멕시코에서는 고주파 미용의료기기 ‘덴서티’, 초음파 의료기기 ‘리니어지’ 등을 공식 공개하며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인도에서는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뭄바이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덴서티를 내놨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덴서티를 선보이며 중동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일본법인, 호주법인, 베트남법인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매출 1921억원에서 70% 이상을 해외에서 거뒀다.

원텍도 글로벌 중심 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원텍은 지난 5일 튀르키예와 태국에서 각각 피부용 레이저 의료기기 ‘라비앙’과 ‘브이 레이저’의 품목허가를 잇달아 획득했다. 또 태국에서는 단극성(모노폴라) 고주파 의료기기 ‘올리 지오X’ 300대 선주문을 기록했다.

원텍은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총 8건, 영국과 호주에서는 총 7건의 미용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제품 개발부터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별 소비자 특성, 시술 선호도, 뷰티 유행, 의료기기 규제 요건 등을 철저히 분석 및 반영한 성과다.

원텍은 “해외시장 성장세와 투자 여력이 크다고 전망해 시장별 신제품을 확

장하는 등 안정적 수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 올해 4분기에는 주요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텍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은 11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당기순 이익은 91% 급증했다.

국내 미용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에 힘입어 ‘K에스테틱’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K의료관광까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의료소비액이 올해 7월에 누적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9월 누적 1조4285억원으로 급증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가 56%로 가장 많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1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업계 일각에선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최신 유행이 K에스테틱으로 확산되면서 미용의료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에 발맞춰 글로벌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지속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SK바이오팜

### 세노바메이트 협력 강화

글로벌 전략·R&D 연계 확대

SK바이오팜은 5~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뇌전증학회(AES) 2025’ 기간 중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과 ‘메디컬 얼라이언스 미팅’을 연달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이 올해 두 행사를 연속 개최한 것은 세노바메이트의 상업·메디컬 전략을 전 주기 관점에서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사업·메디컬 협력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SK바이오팜은 지역별 상업화 경험과 임상·의학 데이터를 통합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하며, 글로벌 전략 실행의 일관성과 속도를 강화했다.

첫날 열린 커머셜 얼라이언스 미팅에는 SK바이오팜 유창호 전략 부문을 비롯해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 주요 관계자, 유럽의 안젤리니 파마, 일본의 오노약품공업, 캐나다의 나이트 테라퓨틱스 등 전 세계 7개 주요 파트너사까지 총 5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세경 기자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국내 첫 ‘비동물시험 인증기관’ 선정

AFI, 심사 거쳐 비동물시험 기관 지정  
오가노이드 평가로 피부·장 개선 검증

사단법인 애니멀프라이니셔티브(AFI)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국내 최초 ‘비동물 시험법(NAMs) 인증 시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NAMs 인증은 동물실험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경우 부여되는 제도로, AFI는 기술 신뢰도·데이터 품질·윤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가노이드사

이언스를 첫 공식 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

AFI는 또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수행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식품·간식 브랜드 로렌츠(Lorenz)의 일부 제품을 국내 첫 ‘반려동물 NAMs 인증 제품’으로 등록했다. 이는 기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부족했던 장기간 사용·반복 노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과학적·윤리적 검증 체계를 확립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 및 반려

동물의 생체 환경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로렌츠 제품군을 평가했다. 귀 세정 패드 ‘풀애포드’는 고농도 처리에서도 피부 독성과 자극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적 사용에도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건강 보조제 ‘원데이스틱’은 장 상피세포 부착률과 장벽 회복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반려동물 간식 ‘로렌츠스틱’ 역시 장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에서 장 기능 강화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제품은 명확한 안전성 기준이 부족해 장기 섭취나 반복 노출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NAMs 인증 도입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NAMs 시험을 주도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김현문 팀장은 “국내 최초 NAMs 시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대체시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에이솔루션 X 꽃카 컬래버 에디션 /애경산업

## 애경산업 ‘에이솔루션’

### 꽃카 컬래버 제품 선포

진정 케어 라인업과 비건 인증 적용

‘에이솔루션’ (a solution)이 무해한 힐링 캐릭터 ‘꽃카’ (Kkotka)와 협업을 통해 1020 잘파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에이솔루션X 꽃카 컬래버 에디션’을 출시했다.

에이솔루션 X 꽃카 컬래버 에디션은 ▲피지를 줄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 주는 ‘클렌징 폼’ ‘토너’ ‘토너패드’ ▲칼라민 성분을 추가해 집중 케어 단계에 적합한 ‘스팟’ ‘세럼’ ‘크림’ ‘팩’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트러플 스팟 패치’ ▲빠르게 피지와 모공을 관리하는 ‘3분 수분 진정 클레이 팩’ 등으로 구성됐다.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처방을 적용해 한국 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에이솔루션 브랜드 담당자는 “에이솔루션은 잘파세대가 겪는 대표적인 피부 고민에 맞춰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감성 트렌드를 적용한 브랜드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GC, 베트남에 AI 기반 정밀검진센터 열어

조기검진 수요 맞춰 암·생활질환 분석

GC(녹십자홀딩스)는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GC측은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이번 헬스케어 센터 개소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으며,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또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차트 없는 시스템(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JW중외제약, AI 신약후보 국가과제 채택

신규 기전 선도물질 최적화 착수

JW중외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로 발굴한 대사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신약R&D 생태계 구축 연구(후보물질)’ 과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JWWave를 활용해 구조 기반 모델 고도화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유효물질(hit)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기전의 선도물질을 확보했다. 해당 물질은 현재 후보물질 단계에서 최적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회사는 24개월간 연구

비를 지원받아 비임상 진입을 위한 선도물질 구조 최적화, 기전 연구, 예비 독성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선도물질은 기존 대사질환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신규 기전을 갖춘 경구용 First-in-Class 후보물질로, 향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기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영역에서 혁신신약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AI 기반 신약연구 통합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를 통해 신약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세경 기자